

KICRA NEWS

텔레컴데이터, 격월간 'Computer Telephony' 창간 컴퓨터와 통신 통합 다뤄 … 'tele.com' 'Mobile Data'는 월간 전환



텔레컴데이터(대표 박종환)는 지난 10월 격월간 'Computer Telephony'를 창간했다. 이번에 창간한 'Computer Telephony'는 美 CMP 미디어의 'Communications Convergence(舊 Computer Telephony)' 한국판으로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인터넷으로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를 다루는 매거진이다.

격월간 'Computer Telephony'는 ▲xSP/호스팅 서비스 ▲SIP 기반 소프트 스위치 ▲코어 컴퓨트 네트워크 ▲플랫폼 ▲인스트던트 메시징 ▲모바일 비즈니스 ▲패킷 텔레포니 ▲멀티미디어 컨택트 센터 ▲eCRM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한편 텔레컴데이터는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tele.com'과 'tele.com · Mobile Data'를 각각 분리, 월간으로 발행키로 했다.

이로써 이 회사가 발행하는 매체는 월간 'tele.com' 월간 'Mobile Data' 월간 'Test&Measurement KOREA'와 격월간 'Computer Telephony'를 포함 총 4개 매체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ele.com Award 2001』 신청 마감 임박 12월 20일 마감, 수상업체는 美「tele.com」에 소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 통신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양, 국내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tele.com Award 2001」 참가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

통신산업 비즈니스 전문지 월간 「tele.com(www.teledotcom.co.kr)」이 매년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2회째로 국내 통신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뛰어난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베스트 솔루션 ▲베스트 서비스로 나뉘며 위 항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천 또는 타천받은 후 실사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업체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외국기업 1개社를 선정해 시상하는 'tele.com Contribution 2001'을 신설했다. 심사위원은 「tele.com」Korea 편집진이 선정한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심사위원 명단 별첨).

「tele.com Award 2001」 수상업체는 대표이사나 해당자를 격주간 「tele.com」Korea 표지인물로 게재함과 동시에 주요 사업에 있어 본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tele.com Award 2001」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세계 15개국 언어로 발행되는 美 「tele.com」뿐만 아니라 아시아 16개국에서 발행되는 「tele.com Asia」에 소개할 예정. 따라서 해당업체는 글로벌 경쟁력 보유 검증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ele.com Award 2001」 참가 신청 마감은 12월 20일. 시상식은 1월 20일 개최. 문의 02-597-3600.

어떤 사람들이 심사하나

자타가 공인하는 통신업계 전문가들

「tele.com Award 2001」은 주최측의 평가 과정 참여를 배제하고 철저한 외부 심사를 전제로 진행한다. 수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다. 박사급 전문위원단의 1차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통신업계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업체가 결정된다. 다음은 심사위원단과 전문위원단 명단.

■ 심사위원단

양승태 정보통신부 장관(심사위원장)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임주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최동휘 (주)텔레컴데이터 회장
정태수 이서디리틀(ADL) 사장

■ 전문위원단

김영환 한국통신 B2B 솔루션사업팀장
양우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규익 정보기술원 단장
임덕빈 IT 모바일 부시장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2001 '기대주'

양대 대표 박람회 통합... IT종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국내외 유망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전시회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2001이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전시회인 소프트엑스포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분야의 대표적 전시회인 디지털콘텐츠페어를 통합하여, 그 동안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었던 전시품목을 IT 전분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IT분야 종합 비즈니스 박람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실현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의 투자증권사 및 벤처캐피탈 CEO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은 국내의 교육, 게임 콘텐츠 및 각종 솔루션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참석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내 및 국외 새로운 기업 및 기술 발굴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의 하드웨어, 스토리지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행사 참여를 준비중이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모바일 관련 솔루션, 아시아 프로젝트의 공동수주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한다. 호주에서는 8~10개 업체들이 국가관을 조성하여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에서만 20개 업체가 참가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라이브러리 현황과 중국문화권 내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장 진입 전략 및 마케팅 협력방안을 위한 '한/중디지털 라이브러리' 세미나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관리와 향후 기술 발전방향을 소개하는 'SEDICA(SEcure Digital Contents Association) 기술 워크샵'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2001 '투자관련 행사도 풍성'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해외 IT 및 인터넷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유치, 수출촉진을 위해 전세계 1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회의 해외지국 네트워크를 활용, 20~30여명의 해외 투자가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IR 및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간 제휴처 물색과 SW, HW, 솔루션 등 IT관련 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전에 초청될 해외 투자가 및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사업모델/기술 부문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에 합당한 기업을 사전에 심의, 평가하고 이를 인터넷기업협회와 해외 지국장이 최종 8개사를 선정, 12월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기업설명회와 개별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nvest in Korea

국내 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IT바이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IT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기업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협력단 주체로 Invest in Korea컨퍼런스가 SOFTEXPO/DCF 행사 기간인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간 COEX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다. 미국,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지의 마켓 채널이 채널구현 전략 및 실제 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해당지역의 IT시장 구조와 소비자 요구, 유통구조,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 유형 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이번 Invest in Korea 세미나 운영은 미국, 캐나다, 남미, 유럽 지역의 VC, 컨설팅/SI/NI/VAR, 유통 사업자 등 마켓채널 및 채널 후보 바이어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도와 중국에서는 정부기관 및 현지 주요 기업 바이어 등 해외 IT바이어와 국내기업간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실시를 구성할 계획이다.

2002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사업설명회

2002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의 정보화 수요계획 발표를 통해 민간 업체의 차기년도 사업반영을 위한 정보통신부주최 설명회이다. 해외 참가국의 정보화수요계획설명회도 개최(요인 발생시)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일시: 2001년 11월 29일 (목), 14:00~16:00

-장소: 코엑스 국제회의실 401호

-주최: 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